

담양군, '광명동굴 상생장터'서 담양농특산물 알려

2016년 업무협약...7월 16일까지 농특산물 판촉 나서

"우수 농특산물 많은 관광객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

담양군 농특산물 전문 판매장 '담양장터'가 7월 16일까지 열리는 '2023년 광명동굴 상생장터'에 참가해 농특산물 판촉에 나섰다.

2017년부터 진행된 광명동굴 상생장터는 광명시와 협약된 40개 지자체 소속 판매업체와 광명시 관내업체의 참여로 우수한 농·특산물 판매가 이뤄지는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이다.

담양군과 광명시는 2016년에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협약을 맺어 '광명

동굴 상생장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상생장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신선한 농·특산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에서 열리는 상생장터에 담양장터가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담양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많은 관광객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많은 사람 부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현황도로 내 편입토지 한시적 매수

화순군은 최근 마을 내 통행권 분쟁 등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기반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을안길 등에 편입된 일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마을안길 등에 있는 현황도로는 과거 일제강점기, 6·25전쟁, 1970년 새마을사업과 맞물려 지적공부 등을 정리하지 않고 마을에서 주민들 상호 협의로 안길 등을 정비해 오랫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일반인의 통행에 공용되어왔다.

하지만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매매, 상속 등에 의해 소유권자 변경으로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주민 통행권 간의 분쟁이 심하여, 기반시설 정비 지원, 안길 폐쇄 등 각종 민원, 주민 간 갈등 및 법적 다툼이 잦은 실정이다.

화순군은 현재까지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주민 통행권 간의 분쟁이 잦은 상황에도,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내 기반시설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군 주도의 분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군은 올해 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여 마을안길 등의 기초생활 기반 시설 정비 시 초래되는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일반공중에 제공되는 사유지 일부에 대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보상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순군 공공시설 편입용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공공성, 소송,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신규 군 발주 관급공사로 사유지 내 지하매설물 등을 설치한 건과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건 등을 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공중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유지 보상은 토지소유자가 5월 중 읍·면사무소에 보상신청서를 접수하면, 군에서 읍·면과 함께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보상심의,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 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등기, 보상금 지급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군은 화순군 공공시설 편입용지 보상심의위원회에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계획이며, 6월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부터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한시적으로 마을안길 등에 일부 편입된 사유지 보상이 이루어지면, 현재 당면한 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주민의 화합 및 재산권 보호에도 상당한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 여순사건 교육용 도서 '들꽃으로 피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발간

여순사건 교육용 도서 지난 22일 구례군 초·중·고등학교에 배부



구례군은 여순사건 교육용 도서 '들꽃으로 피어 다시 만날 수 있다면'을 발간해 이달 22일부터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지역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의 피해사례들을 모아 구명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교육용 도서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교육용 도서는 여순사건의 전개과정과 구례지역 여순사건 개별 사례와 피해 유족들의 증언 등을 수록했다. 쉬운 용어와 삽화 등을 활용해 어린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큰 활자를 사용했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는 사건 당시 반군의 은신처였던 지리산 자락에 위치하여 비공식적으로 3,000명 이상의 여순사건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나, '여순사건'이라는 단어를 트라우마와 아픔을 가진 유족들에게 금기어로 각인되어,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교육용 도서 제작을 통해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화합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1월부터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구례군을 비롯한 전남남도 각 지자체에서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각종 '교육문화사업', '역사 유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여순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구례군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중에 있으며, 접수는 읍·면 총무팀과 구례군 여순사건 사실조사단(☎061-780-8695), 구례군청 총무과(☎061-780-2317)에서 할 수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나주시, SNS청년기자단 모집 블로그·인스타그램 2개 분야

나주시가 지역 청년정책과 이슈, 활동을 바로 뛰며 홍보할 청년 기자를 찾고 있다.

나주시는 24일까지 만18세~39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SNS 청년기자단'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기자단 2개 분야로 총 5명을 모집한다.

나주시 관내 거주하거나 학교, 직장 등을 다니면서 블로그 또는 인스타그램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시청 누리집(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이메일(kims805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SNS청년기자단은 6월부터 11월까지 나주시청년센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비롯해 청년정책, 창업, 공동체 활동 등 기자, 콘텐츠로 제작해 SNS로 홍보한다.

시는 콘텐츠 홍보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콘텐츠 제작 지원비를 지원한다.

나주=송준표 기자

곡성세계장미축제와 함께하는 '토란 막걸리'로 취향 저격

축제 기간 동안 매일 다섯 번씩...각 회차마다 선착순으로 15명



곡성군이 지난 20일부터 제13회 곡성세계장미축제장에서 토란막걸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곡성토란도란농촌유

복합사업단과 곡성 주류업체인 시향가가 참여했다. 제13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동안 '토란막걸리 4종(오마카세) 시음'을 통해 토란 막걸리 취향 찾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축제 기간 동안 매일 다섯 번씩(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 운영되며, 각 회차마다 선착순으로 15명이 참여할 수 있다. 한 회차당 소요 시간은 45분이다. 프로그램은 곡성 토란에 대해 알기, 토란막걸리 시음 후기 작성, 포토존 사진찍기, 시향가 패키지 제품 판매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기자마를 정문 대표소 옆 곡성토란도란 체험시설에서 매주 곡성토란을 이용한 '나만의 막걸리 만들기 체험', '곡성토란 달떡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예약제로 시행된다.

시음회에 참여한 관광객은 "토란을 명절 음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토란막걸리를 통해 토란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이었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관